



발행일 2014.6.3.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62-1 2층

웹 pajinbo.net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팩스 062-443-0519

여는 글	생명보다 이윤인 사회를 반드시 바꾸자!
정세초점	박근혜의 눈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실을 감출 수 없다
건강한 일터	경청과 공감의 힘
경제이슈 뒤집어보기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백선생의 책이야기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해 세 시간 노동을! 『게으를 수 있는 권리』(폴 라파르그)
황기자의 눈으로	8거리도, 주민도 기록으로만 남은 학동 8거리
기고	대학,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재 양성소
지역소식/활동보고	목포시립예술단지회, 최저임금 캠페인, 월례포럼
활동계획	6월 월례포럼, 광주노동보건연대 강좌 소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너는 거기 누워있으면 안 된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한국사회는 생명보다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가와 자본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진기승, 전북 전주 신성여객에서 운전을 하던 노동자다. 염호석, 경남 양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노동자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가슴에 묻고 5월 혁명정신과 열사정신의 깃발을 들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생명보다 이윤인 사회를 반드시 바꾸자!

지역과 현장에서 작은 투쟁과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시작이다

“다음 생에는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너의 소망을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간직하며 투쟁하겠노라고 약속하마... 사랑한다 기승아!”

4월 30일. 신성여객 회사의 부당해고와 복직약속 파기에 괴로워하던 진기승 노동자가 자결을 시도하였고, 6월 2일 생을 달리하였다. 전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진기승 동지 쾌유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늙은 버스 노동자는 울먹이며 편지를 읽었다. 신성여객 노동자의 죽음은 처음이 아니다. 4월 16일, 김부관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노조 사무실에서 사망했다.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5월 17일. 헌법과 노동3권을 무시하는 무노조 경영, 겉으로 보이는 삼성의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노동자 착취와 탄압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노동자는 자결했다. 삼성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변화가 아닌 ‘급한 불’을 끄기에만 열을 올렸다. 염호석 노동자의 유서를 무시하고, 경찰은 강제로 시신을 탈취했다. 장시간·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서 삼성전

자서비스 기사들은 1년동안 3명의 소중한 동료를 잃었다. 과로를 호소했음에도 병원에 갈 시간을 내주지 않아 결국 쓰러져 숨진 34세의 임현우. 노동조합 탄압과 생활고로 힘겨워하다가 자결한 32세의 최종범. 10개월 동안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조합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는 삼성을 규탄하며 자결한 34세의 염호석.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될 것이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죽고, 화학공장에서 가스폭발로 죽고, 조선소에서 추락하여 죽고 있다. 이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고객만족도 1위,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한국 우정’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지배원 노동자들이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노동안전보건 실패는 전국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공장을 움직이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노동조건 차별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하남공단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의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회사는 개별면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조합탈퇴를 종용하고 간부를 일방적으로 인사이동 및 직위해제했다. 첨단공단의 앰코테크놀로지는 연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삭감하

고자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세월호 참사속에서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당했다. 한국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노예의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 폭주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 속에 노동자운동은 현재 투쟁을 엄호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과 현장의 투쟁 승리와 전국적 노동자 투쟁 전선 속에서, 한 걸음씩 전진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의 분열 속에 노동자정치는 노동자 투쟁과 대안의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노동자운동과 노동자정치의 현재를 뛰어넘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실천들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신성여객 투쟁, 금속노조의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광주전남지역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지역의 노동·사회단체의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또한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하남, 평동, 대불, 울촌 등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와 노동조합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투쟁 승리와 새로운 운동주체형성은 노동자·사회운동의 핵심이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너는 거기 누워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박근혜의 눈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정책선전위원회



위기는 기회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30여 분의 담화 말미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34일만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61%에 달하던 정부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4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6·4 지방

선거를 목전에 두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사과와 눈물이라는 수세적 제스처와 달리 이번 대국민담화의 의미는 상당히 공세적이다. 정부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한 수’인 셈이다. 담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중간층을 다시금 자신의 지지층으로 결집시킨 후에는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와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위기를 기회로, 즉

단호한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책임회피와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정부 부처의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느꼈고, 조선일보는 ‘충격적 대응’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없고,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과 선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만 있었다.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담화에 유가족

이 요구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답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해경의 무능,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정부 부처인 '국가안전처'가 관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무려 세 개의 기관을 재편하는 과감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성급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청와대를 쫓 빼놓고 부처개편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답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말로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했지만 실제로 지는 책임은 없었다.

답화문이 은폐한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난대응시스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 예방을 위한 해법이다. 예방

을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답화문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다.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참사의 배후라 지목해 왔던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 이전부터 정부가 외쳐 온 공공부문 정상화의 맥락과 정확히 겹친다.

그러나 관료의 비리, 민관유착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해 왔던 '규제 완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선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완화된 규제가 20건이 넘는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과적 및 적재 기준을 완화하고, 선박검사·수리 기술자를 파견 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조치가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국정 과제로 삼아온 정권의 문제이지 일부 관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증축·과적 등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해진해운이 과연 비정상적인 존재인가? 청해진해운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안전업무 외주화·노동유연화 등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이 취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략이다. 청해진해운 역시 느

슨해진 규제를 활용하면서 안전 비용을 줄여 이득을 봤던 하나의 기업이며, 세월호 선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무책임을 체화한 개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구원파라는 종교집단의 특수성과 엮어 악마화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지금부터!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표된 이번 대통령 답화문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일부 비정상적 관료와 기업만의 문제인양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유족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이다.

사고의 원인을 만들고 참사를 키운 책임자인 정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이 미안하다"는 국민들의 비통한 외침은,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해왔던 한국 사회에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뼈아픈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청과 공감의 힘

송한수 | 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



“나도 노점상을 해봐서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마음
 압니다.”
 “저는 젊었을 때 셋방살이를 해봤어요.”

‘세월호’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이
 했던 위로의 말들이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세월
 호’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될 것을
 과도하게 경계하여 유가족들을 위로
 하려는 태도를 아예 거부하는 인간말
 종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의
 도’는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들이 위로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공감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두에 예로 든 말들은 ‘공감’의

‘의도’를 가진 말들이지만, 공감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데, 너의 마음을 알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못하게 만든다. ‘다 알고 있으며, 내 사고체계 내에서 당신의 말을 이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므로, 이러한 말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말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서로 바라만 봐도 알 수 있는 ‘독심술’ 같은 것은 없다. 수 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나,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서 공감의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지레 짐작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사고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이해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살찐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너무 말라서 고민이었던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살찌는 것이 고민이었던 사람에게는 나를 비난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사고체계에서 어떤 말이나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에 대한 심리적 반응, 즉 정서가 생긴다. 정서를 느끼는 것을 감정이라고 한다. 어떤 자극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자동적인 과정이지만 감정, 즉 정서를 느끼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극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반응은 무엇을 의미할까는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다.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단지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려는 동기와 감정을 이해하여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되물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말했던 것이 이런 의미였나요?’, ‘당신의 설명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드백은 상대방이 좀 더 차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말하는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화가 난다. 반면 듣는 사람이 경청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아무리 화를 내는 사람이거나 원수지간이라도 감정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나 글과 예절을 배우고 익

히듯이, ‘경청’하는 방법을 연습하여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경청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은 치유적 힘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직면하기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무엇인가에 몰두하거나 억누른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면,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내 마음이 이랬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변화가 시작된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거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어린 위로를 받는다면 아픔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공감은 경청자들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진도 팽목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노동조합을 지켜려고 애쓰는 동지들에게 연대하는 이유도 ‘공감’ 때문이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공감하게 된다면,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 그 행동은 단지 추상적인 이념이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 ‘와락’을 이끌었던 정혜신 선생님이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치유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주도의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으나, 피해자들은 정부주도의 치유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주도의 기관들은 전문가의 상담과 투약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치료자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지금 세월호 유족을 가장 공감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분들은 세월호의 유족이다. 이른바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다. 같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보내는 공감의 힘만큼 큰 것은 없다. 또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떤 과정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지,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은 경청과 공감 속에서 도출될 것이다. ‘와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세월호의 생존자들을 위해 공감의 힘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백 | 회원



97년과 08년의 위기를 거친 고통의 시대는, 모든 이들에게 자본의 전지구적인 속성을 뼈 속 깊이 각인 시켜주었다. 지난 밤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와 증시 소식을 들으며 출근길을 재촉하는 이들은 도심의 익숙한 풍경 중 하나가 되었고, 중국의 부동산 거품 소식은 이제 해외토픽이 아니라 9시 뉴스에서 다루어진다. 물론 개별 국가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더 굳건해졌다.

이런 자본의 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환율인데, 이 환율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 한달 동안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설마설마 하다가 이제는 더 떨어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떨

어졌기에 그러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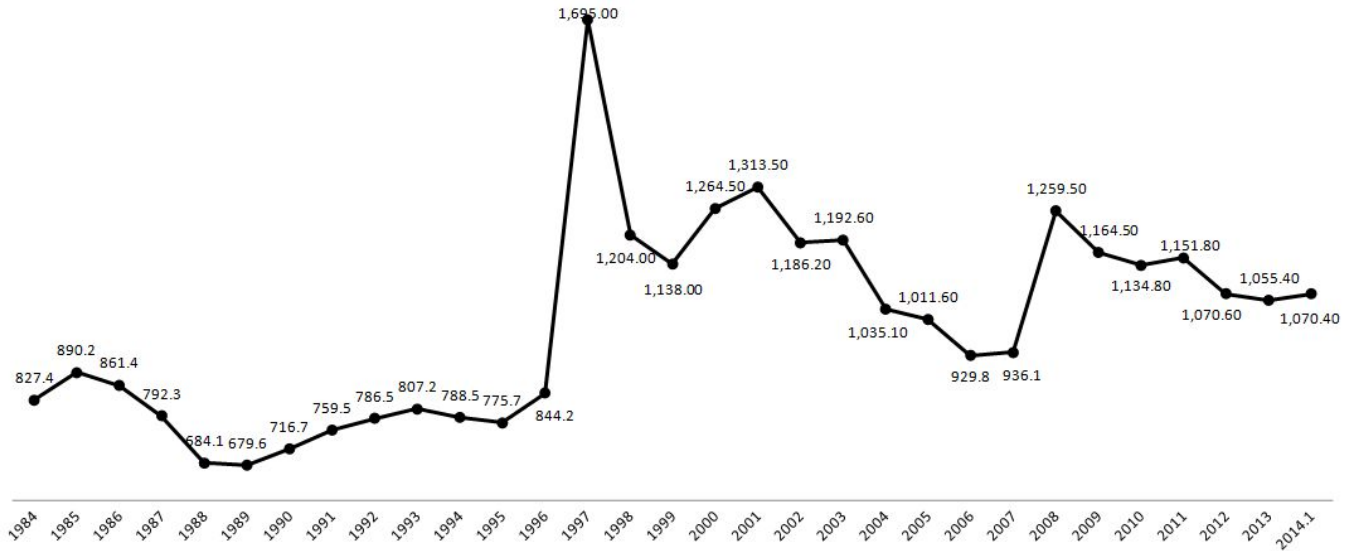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로 인한 손익 분기점을 1,040원 정도로 잡고 있었으니 이미 이 분기점은 깨져버렸고, 자동차산업에서만 환율 10원이 떨어질 때 매출이 4,200억원씩 감소한다고 할 정도로 수출기업들 또한 아우성이다.

그런데 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일까? 돈의 흐름만 따지고 보면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환율이 올랐어야 정상이다. 때문에 2014년 환율이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고, 실제로 환율이 급락하기 직전인 3월 20일까지도, 테이퍼링 가속화로 인해 달러 강세가 두드러져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 반대로 흘러갔

다.

직접적인 계기는 금리를 당분간 인상하지 않겠다는 연준의 입장 발표였지만,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당연히 달리는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국이고, 이 적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를 부양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보니, 노골적으로 한국 등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작년 연말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 원/달러 환율. 출처 :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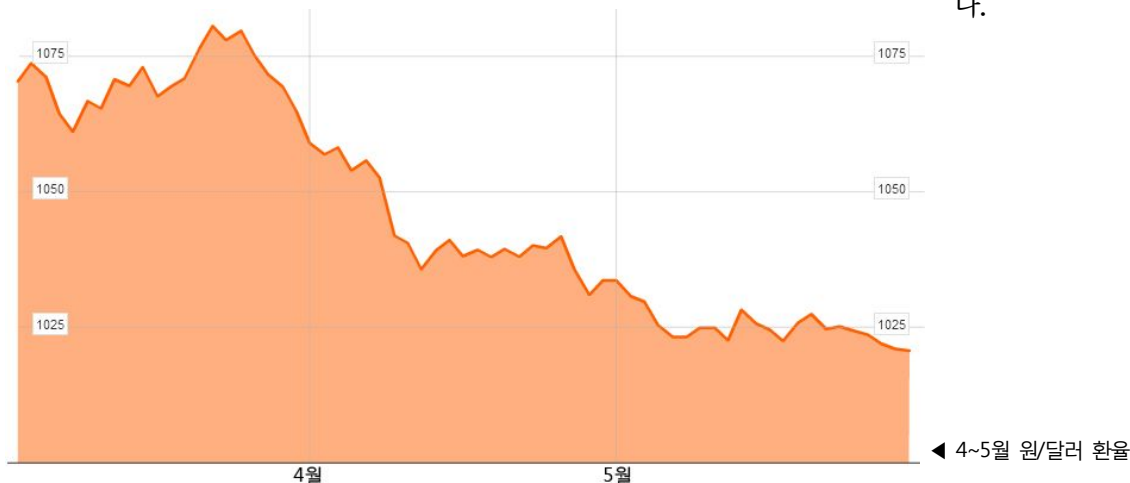
한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며, 원화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외환시장 개입에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를 예상한 투기성 국제 환차익 세력까지 가세하여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88년 환율 협상을 통해 원화 절상을 강요받고 1986년 881원에서 1989년 671원으로 환율이 급락하여 86년 최초로 기록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던 적도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대응할 만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며칠 환율의 움직임이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1,020원 선에서 멈추었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900원대 까지 간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자본의 대응은 크게 내수시장 육성과 새로운 수출경쟁력 확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인 내수시장 육성은 가계부채,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환율 하락이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품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후자인 새로운 수출경쟁력 확보이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과 경쟁을 하기 위한 기술력 개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 등 인건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업 확대, 환율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생산설비 이전 등이 자주 거론된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은 결국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노동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거센 탄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의 변동과 그에 따른 자본의 대응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전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자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들 간의 바닷없는 경쟁을 격화시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의 미래보다는 환차익의 실현을 위해 경제를 뒤흔든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국제적인 연대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해 세 시간 노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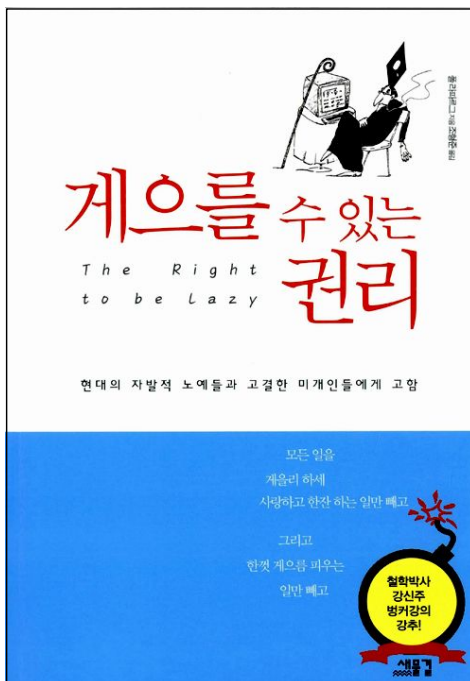
『게으를 수 있는 권리』 (폴 라파르그¹⁾)

백청일 | 회원

“자본주의 문명이 지배하는 국가의 노동자 계급은 기이한 환몽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망상(강조는 인용자)이 개인과 사회에 온갖 재난을 불러일으켜, 지난 2세기 동안 인류는 크나 큰 고통을 겪어왔다. 다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격렬한 열정이 바로 이러한 환상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열정이 어찌나 격렬한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생명력까지 소진한 지경에 이르렀다. 성직자, 경제학자 그리고 도덕가들은 이처럼 정신나간 생각에 반대하기보다는 노동의 주위에 성스러운 광채를 드리우고 있다(43-44쪽).”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 중에서 “공부해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나중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4합 5락(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성공한다고요. 우리 사회는 성실하면 언젠가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이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이 ‘열심히’, ‘성실하게’ 였습니다. 나아가 공부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버전만 다를 뿐이지 오늘 날에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의 신’ 같은 이야기나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식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가 있는 것을 보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미 폴 라파르그는 위의 글처럼 그것이 ‘환몽’이자 ‘망상’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환상인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 나아가 사회에 온갖 재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와 지식인들은 이것을 오히려 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고도 하지요.

무엇을 위해 노동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라파르그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런 신세지만, 미래의 내 자신의 달라질 모습, 또는 나보다 더 좋은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할 내 자녀의 미래, 또는 아내/남편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지요. 이게 아니면 한 주나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끼리의 외식과 휴가, 캠핑, 여행을 다니는 것도 다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면 그게 바로 행복이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다시 라파르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 폴 라파르그 : 1842.1.15 ~ 1911.11.25. 프랑스의 사회주의운동가로 파리코민시대에는 대단한 활약을 하였다. 마르크스-엔겔스의 저작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등 마르크스주의를 프랑스에 보급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그는 마르크스의 둘째 딸 리우라의 남편이기도 하다(인용자).

“과잉생산으로 죽어가고 금융주의 때문에 메말라 가는 노동자의 이중적 광기에 직면하게 된 자본주의 생산의 커다란 문제는, 더 이상 생산자를 찾거나 생산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발견하고 이들의 식욕을 자극해 허구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다(77쪽).”

라파르그는 노동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마련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봅니다.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가 되고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욕망을 마치 자기 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째 라파르그의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라파르그의 놀라운 점은 100년도 더 전에, 20세기의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정확하게 서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점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일 중독자가 되어 여가를 보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여가를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여가와 휴식을 가지라고 말이지요.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 이데올로기'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은 경쟁력이 최고의 가치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카드빚을 지더라도 학원에 등록해서 어학실력과 다양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아무리 위기라고 하더라도 이 위기 속에서도 결국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인 거지요.

그런데 경쟁에 밀려서 나가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정리해고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실력이 없기에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계를 꾸려가려면 결국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은 당연한 거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하더라도 우리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과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최첨단 가전제품과 새로운 자동차와 최신형 스마트폰을 소유할 수 있고, 온 가족이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면서 좋은 아빠, 엄마, 아들, 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연휴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국내여행에 비해 해외여행도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라파르그가 다시 생각납니다. 물론 오늘날은 라파르그가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또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감정과 정서 또한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도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가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좀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서 사회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서술한 행복한 삶은 그야말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지만, '빚'을 지면 그러한 꿈은 실현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빚=돈에 의해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여가와 휴식이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자본의 무한경쟁 이데올로기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한 게으름 수 있는 권리를 제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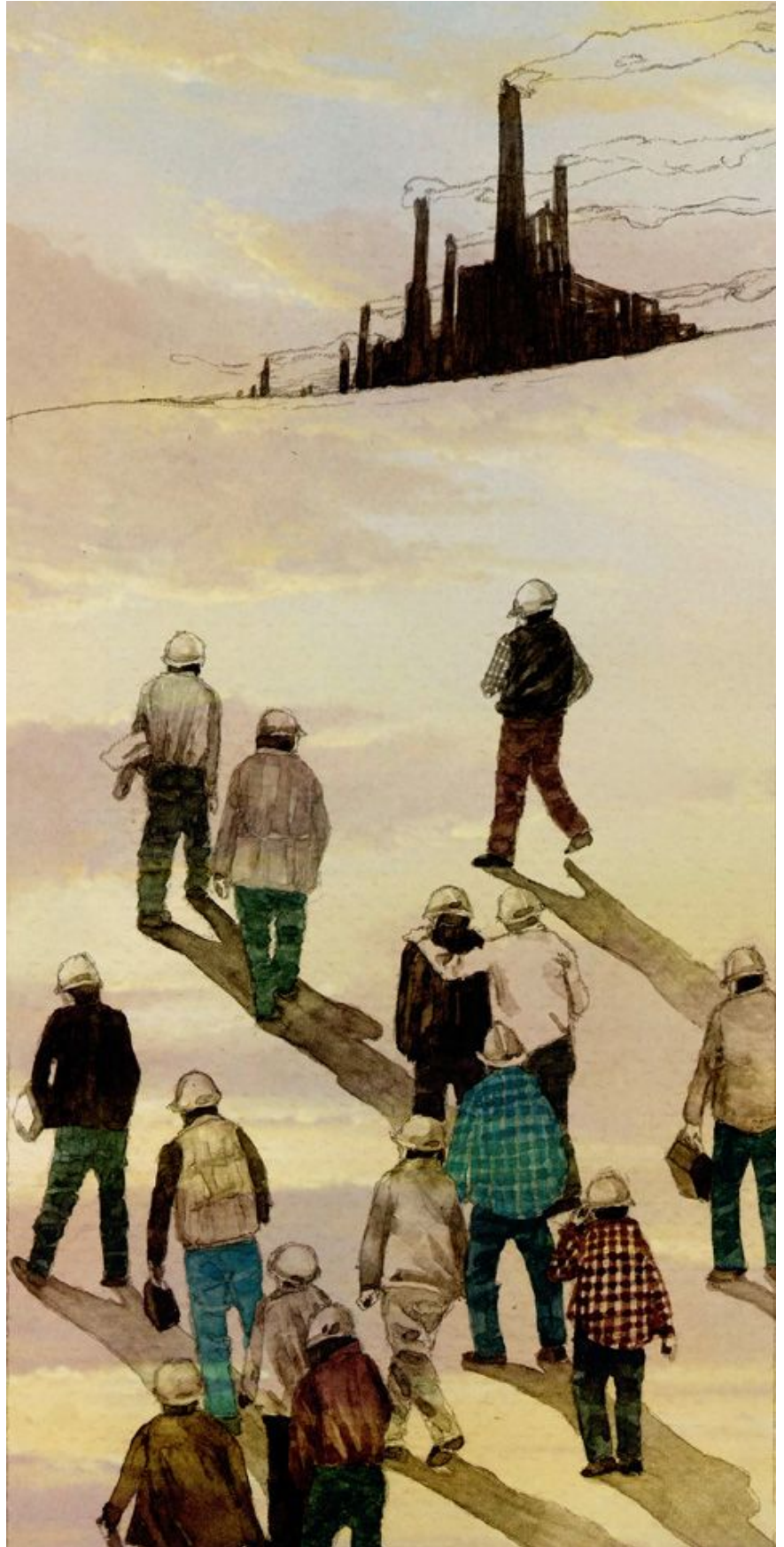
“일단 프롤레타리아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본 하이어나나 자칼처럼 즉시 사러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원기왕성한 힘을 실제로 보여주려면 프롤레타리아는 기독교 윤리, 경제 윤리와 자유사상가들의 윤리에 내포되어 있는 온갖 편견을 짓밟아 뭉개야 한다. ... 프롤레타리아들은 매우 형이상학적인 법률가들이 꾸며낸 부르주아 혁명기의 인권선언보다 천 배는 더 고귀하고 신성한 이 “게으름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해야만 한다. 하루에 세 시간만 일하고, 나

2) 2013년 3월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 임대보증금 부채 포함 가계부채 추정치는 1,483조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7. 16 인용. 참고로 2014년 국가예산은 357조 7천억원. 가계부채는 국가예산의 3배가 넘는다.

머지 낮과 밤 시간은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해 남겨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강조 인용자)(65쪽).”

인간의 ‘노동’의 의미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신까지도 재창조하는 것이 라면, 지금까지 라파르그의 주장은 자본주의적 노동은 소외된 노동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극복하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라파르그의 주장은 그래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토머스 모어³⁾는 『유토피아』에서 6시간 노동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라파르그는 그것의 절반인 3시간 노동을 주장합니다. 라파르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시간만 일하고”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한 시간을 남겨 두는 “습관”을 만들자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권’은 생존을 위해서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노동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의 극복을 위해 투쟁하는 삶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외부를 생각하면서 자유로운 발상과 기획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일이겠지요.



3) 토머스 모어 : 1477.2.7 ~ 1535.7.6. 이상적 국가상을 그린 명저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인문주의자.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8거리도, 주민도... 기록으로만 남은 학동 8거리

황해윤 | 광주드림



이충신(33) 씨는 동구 학동 ‘학2마 을 휴먼시아 아파트’ 203동에 산다.

이 씨가 태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곳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가 밀어버린 학동 팔거리 어느 골목 모퉁이 집이다. 그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른이 됐다. 그가 살았던 마을과 지금 그가 사는 곳의 장소는 같지만 다르다. 그가 태어나 자라온 골목길 모퉁이집도 사라졌고, 골목길도 사라졌다. 이웃들도 흩어졌다. 그의 새로운 주거지는 고향을 잊었다. 사라지는 것은 시간에

쉽게 묻힌다.

그도 학동팔거리의 삶을 잊고 살았다.

그런 그가 한 장의 사진 앞에 서서 자신이 태어난 곳과 뛰놀던 곳을 눈으로 좇으며 감회에 젖는다.

“아. 이곳이 우리 집이었다니까요.” ‘기록’이 그의 기억을 다시 꼬집어 낸다.

“얼마나 많이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한 번 들어가면 못 찾는 길인데 나는 흔히 알죠.”

지금은 사라진 학동 팔거리의 기억

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사료 기획전시회가 열렸던 지난 4월16일 동구 학동 역사공원에서 이 씨는 자신이 살았던 옛 동네와 다시 조우할 수 있었다.

동구의 주거개선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철거된 학동 팔거리는 1930년대 만들어진 마을로 일제 강점기의 주택과 여덟 갈래로 뻗어나가는 독특한 골목길과 마을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마을이었다. 동구 학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그 자리엔 고층의 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학동 팔거리에서 오랫동안 삶을 꾸

려갔던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형편 때문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학동 팔거리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살았는지 말해주는 것은 이제 기록 밖에 없다.

기록으로 학동 팔거리를 들여다본다.

동구가 주최한 사료기획전시회 사진속 팔거리는 독특하다. 광장을 중심으로 좁은 골목들이 여덟 갈래의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 있다. 그 중 한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광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장에서도 다시 여덟 갈래의 골목이 뻗어나간다.

그러니까 광장에 서면 동네 이곳저곳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다. 방사선 형태다. 학동 팔거리의 독특한 구조는 일제 강점기와 관련돼 있다. 여러 개의 팔거리가 이어지는 마을 구조는 원형 감옥인 ‘판옵티콘’ 형태와 유사하다. 학동 팔거리는 1936년 조성된 마을로 일제가 광주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천변에 토막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하여 갱생부락이라고 불렀다. 갱생이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 일제는 가난한 ‘궁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감시했다.

기록으로 남은 주민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들락날락 허는 사람들 동태파악을 편리하게 헐라고 일본놈들이 만들었다고도 해.”

“일제가 이 동네를 만들 때 중앙팔거리를 중심으로 여러 팔거리를 이어 만들었다는데 지적도 떼어보면 이게 꼭 일장기 흉내를 낸 것 같

어.”
“저기가 ‘중앙 팔거리’인디 거기서 서북쪽, 동북쪽, 남서쪽, 동남쪽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다른 ‘팔거리’들을 볼 수 있어.”

팔거리의 설계 의도가 어떻든 민초들은 그곳을 삶터로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왔다. 전시 자료 중 주민들의 구술이나 기사 자료 속 팔거리 주민들의 증언들이 그렇다.

“팔거리 골목은 집과 집 사이가 좁잖아요. 어느 집에서 된장찌개라도 끓이면 구수한 냄새가 길 따라 퍼져요. 골목이 가정집 마당, 마루라고 보면 되는데, 골목에 평상 깔고 밥상 놓으면 누구라도 손가락 들고 와서 같이 먹어요. 뒷산에서 캐온 나물에 상추쌈에 한입 가득 넣고 맛있게 먹었지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당산나무 아래 종대거리는 축제장이라고 보면 돼. 옛날에는 천막극장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골목골목 돌아온 풍물도 놓고, 노래지랑도 했지. 같이 모여서 어울리면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놀았어.”

“방귀만 꺾어도 안다고 우리는 그래.”

“내가 아프든 119라도 불러줄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여.”

“여그는 시골 마당이나 똑같애. 초상나고 대사 치고 할 때는 음식도 내고 곡(哭)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허는 마당하고 팡야 똑같애. 여그가 공통마당이야.”

“여그가 솔직한 말로다가 없는 사람

들이 모태 사는 디요. 집 평수가 보통 일곱 평이야. 그것이 네모지게 떨어지거나, 모다 흥어떡지 마니로 삼각형으로 떨어졌제. 집구석은 작아도 신간은 편헌디 어디 가서 이만치 편허게 살 것인고. 사통팔달로 신바람 들어오고 버스길 좋고 우리는 우리동네만헌 디가 없다 허고 사요.”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가난으로 밀려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 그 이후로도 학동 팔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지만 그곳에서도 삶은 일구어졌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나쁜 일에 함께 대처해 나가고,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모여 어울려 살았던 학동 팔거리 주민들의 삶을 기록 속에서 확인한다.

학동 팔거리는 이제 사라졌다. 수십 년 동안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주민들 역시 흩어졌다. 기록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일궈온 삶 역시 알 길이 없다. 그저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가난한 동네로만 남았을 것이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당도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지워진 많은 이야기와 삶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사라지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터.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분투하는지도 모른다.

대학,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재 양성소

‘시장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모의토의 강요하는 전남대

서단비 | 전남대 용봉교지편집위원회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휘청거리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구조조정은 IMF 이후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함께 시작된 정부주도 방침이다. 1998년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 2003년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4년 대학구조개혁 방안, 2009년 대학구조조정 추진 방안 및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그리고 2014년 대학구조개혁까지. 정권에 따라 강도만 달랐을 뿐 대학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학운영, 기업의 요구에 따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는 대학에서의 민주주의 축소로 이어졌다.

대학 구조조정안이 강조하는 ‘경쟁력’은 ‘시장경쟁력’이다. 이때 국립대가 가야할 최종 방향은 법인화이고, 총장직선제는 그 효율성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다.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대학이든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즉 어느 정도의 상품가치로 잘 ‘팔리는가’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시장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학과들, 특히 경제적 성과를 보이기 힘든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모호한 이름으로 통폐합됐다.

이 와중에 대학의 경영,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생은 대학의

일을 논의하고 만들어갈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학부모와 한데 묶여 학교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아 가면 그만인, 관리대상인 ‘수요자’ 즉 ‘소비자’로 전환되었다. 대학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은 후 ‘경쟁력 있는 회사’에 취업해서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면 감사할 따름인 그런 존재로. 하지만 안락한 소비자의 자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대학이 설 곳은 더 좁아졌다.

전남대는 2014년, 양질의 기업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모의토의를 장학졸업제한을 이유로 학과를 불문하고 1314학번 학생들에게 통보하며 강제했다. 이때 시험의 비민주성, 강제성 그리고 대학의 자본화를 비판하며 시작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을 반대하며’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부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요하는 각종 굴레를 대학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대학의 본래 역할과 목적은 상실된 상황에서 오히려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기를 든 것이다.

지금의 사회가, 국가가, 시장이 대학에게 던지는 ‘어떤 교육인가’, ‘어떤 대학인가’, ‘어떤 변화인가’, ‘어떤 경

쟁력인가’라는 질문들은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모호한 답으로 수렴된다. 이는 결국 ‘시장경쟁력 강화’를 뜻한다. 깊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인 ‘성찰’이 부재한 지금의 대학구조조정은 우리가 봐왔던 상황보다 더 황량한 모습으로 대학의 비민주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말도 없이’ 통보될 것이다. 학과의 다양성은 잠식당하고, 대학 구성원의 연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열린 공간보다는 각자의 공간에서 사납게 노려보는 무한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이는 이미 우리 일상에 녹아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안락한 소비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까. 아니면 열린 창구 앞에서도 헤맬까. 분명한 것은 헤매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며 헤매는 중에도 자신을 주변화하려는, 안중에도 안 두려는 시도에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주변화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난폭한 결정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막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닫힌 창구는 열고, 열린 창구에는 요구하자.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목포시립예술단지회가 목포시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2014년 1월 1일 목포시청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단원 2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한 이후 목포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5개월간 정리해고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왔다. 그 결과 5월 14일 목포시청과 정리해고 철회, 고소고발 취하, 삭감된 예산 추경 반영 등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5월 19일에는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목포시립예술단지회의 투쟁이 값진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어질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투쟁, 그 한가운데서 목포시립예술단지회 조합원들의 뜨거운 투쟁을 기대한다.



너무 적은 최저임금,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5월 21일 광천터미널에서, 5월 28일 전남대 후문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최저임금이 단순히 임금의 최저한도가 아니라 임금을 정하는 기준처럼 쓰이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빈부격차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현실화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캠페인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월례포럼 <1980, 대중봉기의 민주주의>

-80년 오월광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새기는 계기

5월 15일 목요일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200호 강의실에서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대학교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전남대학교 학생행진이 함께 준비한 5월 공동월례포럼이 진행되었다. 주제는 <1980, 대중봉기의 민주주의>, 강연자는 동명의 저서를 저술한 김정환 교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였다. ‘우리는 오월광주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월례포럼에는 50여명의 학생/시민들이 참석하여 ‘오월 광주’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고민들을 나누었다.



[6월 월례포럼을 소개합니다] : 대학 구조조정의 역사와 진실

6월 25일(수) 오후7시, 전남대 제1학생회관 200강의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전남대 학생행진, 용봉편집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공동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3월에는 의료민영화, 4월에는 오바마 방한이 무엇을 남겼는지, 5월에는 대중봉기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실천과제를 도출해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은 더 이상 사회비판 지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높아진 취업문턱을 넘고자 대학생들은 아등바등하며, 대학은 취업률이 1순위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6월 월례포럼에서는 현재 전남대학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모의토익을 강요하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의 역사와 '경쟁력 강화' 라는 허구 속에 감춰진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6월 월례포럼은 6월 25일(수) 오후7시 전남대 제1학생회관 200강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자건강 강좌] : 대한민국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6월 11일(수) 오후7시, 민주노총 2층 교육실 / 참가비 1만원 (자료집 포함)

2014년 4월 16일, 신자유주의의 험난한 바다위에서 이윤에 눈이 먼 정부, 기업, 언론은 소중한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진 벌써 50여일,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현장에서 세월호 참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공식 통계로만 1929명이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우리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광주노동보건연대는 6월 11일(수) 오후7시에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을 모시고, 세월호참사와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죽음에 맞선 행동에 대해서 고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강연문의: 062-524-1175 / 010-2606-1175 (광주노동보건연대)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와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